

주일의말씀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서덕교 야고보 신부
사동본당 주임



오늘 교회는 주님의 수난을 기념합니다. 십자가는 계시의 정점, 계시의 요약입니다. 오늘 선포된 ‘주님의 수난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체성사와 성체성사에 봉사하는 신품성사의 제정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희생제사입니다. 이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하나의 신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신비를 드러냅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하시며 내어주신 그 몸이 십자가 제단의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선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겟세마니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인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수인내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성체성사에 고스란히 묻어있습니다. 지극히 소박하고 단순한 성체성사에는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볼 수 없는 하느님 사랑의 결정체, ‘사람에게 내어주신 하느님’ 이십니다.

하느님의 이 크신 사랑은 미사성체를 통하여 세상 종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배풀어집니다. 미사참례로 우리는 하느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바칩니다. 미사참례로 사제요 제물이시요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고, 따라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미사참례로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립니다.”(요한4,23~24) 사랑(봉헌)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받아들이고 봉헌하는 주님과의 이 교류(친교-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몸과 피를 잘 모신다면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됩니다.”(성 아우구스티노) “성사들의 성사인 성체성사의 최고 목적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이 되기 위한 누룩이 되는 것이다.”(모리스 준텔) 영성체로 완결되는 미사참례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이 되어갑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하느님이 되어갑니다. “사랑이 되라”고, “하느님이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오늘 우리가 거행하고 참여하는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으니 십자가는, 따라서 미사성체는 교회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한 자녀인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온갖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말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어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태26,42 참조)

제1독서 : 이사50,4-7 제2독서 : 필리2,6-11 복음 : 마태26,14—27,66.

23.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저 여인은 누구실까? - 레지오 마리에 도입

문화홍보실

한 국에 소개된 여러 가지 신심 운동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있고 또 참여하는 교우의 수도 많은 것을 들라면 레지오 마리아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지오의 신심이 우리 풍토나 성정에 잘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세계적으로도 레지오 마리아 하면 우리나라를 예로 들 만큼 이 신심이 유독 한국에서 왕성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복음화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레지오 마리아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1921년 아일랜드의 프랭크 더 프라는 분이 시작한 신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창립 90주년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53년 7월 25일로, 목포에서 최초의 회합이 열렸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서정길 주교님 때인 1957년 1월 13일, 왜관본당의 <종도의 모후> 브레시디움에 그 시작입니다. 그 다음 달에는 계산본당에서 <다윗의 적루>와 <셋별> 브레시디움이 첫 회합을 가지게 됩니다. 신자 수는 계속 불어나고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신영세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던 때에, 브레시디움 회합은 새로 믿음을 가지게 된 교우가 본당

생활을 배우고 기존 교우들의 공동체에 친숙해지는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더블린의 본부에서 대구에 세나투스를 설립하는 문제로 우리 교구를 찾아왔을 때, 대구 레지오에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때 본당 신부님들이 청한 것 때문에 이 서양 분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모님의 존칭을 더 많이 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모 덕행 도문에 나오는 “황금궁전”이라든지 “천사들의 모후” 같은 존칭으로 브레시디움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새로운 브레시디움이 자꾸 생겨나다보니 브레시디움 수가 너무 많아져서 큰 본당에서는 이름이 같은 브레시디움이 나올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사랑과 순명으로 무장을 한 이 성모님의 군대는 우리 교구 교우들에게 좋은 신심의 본보기기를 보여 주고 그 뒤를 이어 여러 훌륭한 신심 단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앞장을 서 주었습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나누어주는 성령께서는 찬미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기가 막혀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입당 성가

10 주를 찬미해

화답 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복음 환호 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봉헌 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 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
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파견 성가

119 주님은 우리 위해

영성의 향기

::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우리 가운데 유혹에 대해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홀로 완전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청하도록 가르쳐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래도 유혹에 빠져 죄를 지으면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에는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청도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서로를 지켜 줄 책임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유혹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고 격려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대신해서 속죄하고 용서의 은혜를 빌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이웃들이 어디 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카인은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하고 물으시는 하느님께,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형제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완벽 추구의 함정



지구상에 정말 깨끗하고 때 묻지 않은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이곳에는 황사나 방사능은 물론이고 미세먼지도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오염된 대기가 흘러오는 일도 없고, 산성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관광객도 없고 인구밀도도 낮아서 공기는 지극히 맑으며, 심지어 세균조차도 매우 적습니다. 이 완벽한 장소는 바로 영하 8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지대, 남극입니다. 가끔 우리는 “저 사람만 없다면” 혹은 “이것만 좀 어떻게 고치면” 하고 바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마음에 꼭 드는 환경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옮겨온 글입니다 -

모임 / 행사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4.18(월) 14:00, 교구청별관 대화합실
※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가톨릭미용인회 빛 모임

일시: 4.25(월) 20:30, 요안나 미용학원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제36회 대구대교구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

일시: 5.28(토) ~ 29(일)
접수마감: 4.29(금)까지
문의: 교구평협, 250-3057

성소 / 피정

섭리기도모임(미혼여성)

일시: 4.17(일) 16:00 성당성당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3940-3635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4.20(수) 13:00~17:00, 지도신부: 강요섭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모임

일시: 4.21(목) 16:00 ~ 24(일) 14: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교이상 - 만32세이하 미혼남성
문의: (010)8353-2323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4.24(넷째 주 일요일) 14:00~
장소: 칠곡동명본원, 성소상담 언제든 가능
문의: (010)3113-6219, <http://smm.or.kr>

바뇌의 성모기도회 16주년 춘계 대피정

일시: 4.28(목) 9:30~16:00, 삼덕성당
강사신부: 최원석, 문의: 427-7543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봄1·2차 피정

일시: 1차 4.30(토)~5.1(일), 2차 5.21(토)~22(일)
대상: 32세 미만의 미혼 여성
회비: 1만원
준비물: 성경, 필기구, 세면도구
문의: (010)3803-8973 / 659-3404

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성소주일행사

일시: 5.15(일) 13:00
장소: 대구 월배수도원
대상: 중1 - 30세이하 미혼 남성
문의 및 접수: (010)5064-7467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성소주일

일시: 5.15(일) 9:30~17:00 (미사 있음)
마감: 5.1(일) 전화 접수
대상: 유치부 ~ 대학 일반부
문의: 예수꽃동네 형제회자매회
(011)806-6879 / (011)464-1265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음악원 오르간·성악전공반 모집

문의: 255-4847

'앗숨' 조이플 스테이

일시: 1차 4.23(토) 17:00 ~ 24(일) 15:00
2차 4.30(토) 17:00 ~ 5.1(일) 15: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대상: 미혼여성
문의: (010)9056-9005 / (010)2649-2045

관덕정 영성강좌

기간: 4.29~6.10(매주 금요일) 10:00~12:00
주제: 여성, 천주교와 만나다
강사: 김경숙 대례사 교수(영남대학교 국사학과)
수강료: 3만원
문의: 254-0151, 신착순: 50명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창작사진: 5.2(월) 10:00
초급영어: 5.6(금) 13:00
중급영어: 5.12(목) 10:00
서예: 5.12(목) 13:00
문의 및 신청: 254-6115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신앙 캠프(2박3일)

기간: 1차 7.23(토) ~ 4차 8.3(수)까지
장소: 경북 예천 농은수련원
대상: 초등학생 3학년 ~ 6학년
참가비: 7만원(cafe, daum.net/nongyeun.or.kr)
문의: (054)652-0592 / (010)2808-0591

직원 채용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간호사 모집

일시: 4.23(토)까지
문의: 성가요양원, (054)976-8122

안내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진창순, 김상무(스테파노)
전병현(스테파노), 조사흠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18일(월) 오전11시	성동성당	한티 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4월 18일(월) 오전11시	한티순교성지
포항지역 군중후원회미사	4월 1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4월 19일(화) 오전10시	평화성당

예금과 대출은

- 신속하고 간편한
-이마트남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판희(안토니오)

안경원

리 네 드

T. 427-8070
동성로 금곡삼계탕 맞은편



안경 트렌드의 중심
원장 옥정희(프란체스카)

악손 척추 교정원

디스크·요통·신경통
근골격계, 신경계질환
지압, 교정, 자세, 체질검사
30년 전통 이 루카 425-7695
대구역 옆 라이프 상가 245-1호
www.m-hand.co.kr

강남 피아노사

중고피아노고가 매입
조율, 운반, 수리, 매매
각종 악기 영가 판매
☎ 010-3541-8194
053) 423-7009
김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치질·치루·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전문의 : 배선익(사도요한)
지하철 2호선 범어역 3번출구, 수성못방향 → 300m
TEL : 745-6633~4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752-9797

매일i프라자

김요셉(홍은) 유통단지 전자관 1층 233호
TEL: 604-3301(대)
전자부/소형가전·TV, 선풍기, 에어컨, 냉방기, 난방기, 통역기
의료기·안마의자, 전기책걸이, 안마기, 온열매트, 온수매트, 전기요
PC부/컴퓨터, 주방기기, 프린트, 워셔드, USB공유기, 전선용품

우리타운 & 우리웃

우리나라 수사법에서 한자에서 직접 생산,
관리 및 감독하여 식약청 허가를 받은 보이차!
전통차, 자연염색의류, 우리한복, 다기 및 다도구
수정대례원 원장 정수자 (엘리사벳)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768-3 화랑로
010-3510-2184